

“목표는 마무리”… 완생의 꿈은 계속된다



투수 김윤동

지난 2년간 163이닝…필승조 굳혀
특별 관리 선수로 피칭 속도 조절
“묵묵히 준비해 내 자리 찾겠다”

KIA 타이거즈의 '미생(未生)' 김윤동이 '완생(完生)'의 2019시즌을 꿈꾼다.

KIA의 스프링캠프가 진행될수록 김윤동의 이름이 부각되고 있다. 임기준, 박준표, 김세현, 윤석민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오키나와 캠프 명단에 빠져있고 '선발 후보' 한승혁도 오른쪽 내전근 부상으로 28일 귀국길에 오른다.

마운드 출부상으로 물음표가 가득한 마운드에서 김윤동은 가장 믿을 만한 카드 중 하나다. 김윤동은 지난 2년 동안 163이닝을 책임지며 팀의 필승조로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2년의 모습 그리고 팀 상황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김윤동은 '미생'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코치님이 아직 미생이라고 하시더라”며 웃은 김윤동은 “1군에 먼저 있어야 한다. 주위에서 다 잘한다. 내가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겸손해했다.

많은 이가 마무리로 주목하는 김윤동은 ‘경쟁’을 먼저 이야기한다. 예년보다 낮은 페이스와 젊어진 마운드가 김윤동을 초심으로 움직이게 한다.

김윤동은 지난 4일 불펜 피칭 이후 겁을 늦췄다. 지난 2년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만큼 차근차근 완벽한 어깨 상태로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선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2일 김윤동은 불펜 피칭을 재개하면서 2019시즌의 시계를 다시 돌렸다.

김윤동은 “트레이닝 파트와 코치님들은 천천히 하라고 하신다. (몸 상태가) 괜찮으면 시작하는 게 낫다고는 하시는데 선수들이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 몸 상태는 좋다. 2년 많이 던지고 안 좋은 케이스를 봐서 그런 점에서 불안한 게 많았다. 올해도 기술 훈련을 잘 안 하고 뒤통을 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많이 뒤쳐진 것 같아서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쉬어가는 시간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지만 김윤동은 어깨 상태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차근차근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아간 자율 훈련 시간도 김윤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 KIA 마운드에서 '마무리 후보' 김윤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KIA의 스프링캠프가 마련된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훈련을 하는 김윤동.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의 일과 중 하나다.

김윤동은 “처음에는 보강 운동을 하느라 야간 훈련을 안 했는데 내 자신이 불안했다. 연습경기 하는 것을 보면서 남들은 치고 올라오는 데 나는 제자리에 있으니까 불안했다”고 말했다.

‘마무리 김윤동’은 개인은 물론 팀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는 욕심 없이 몰 흐르듯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이다.

김윤동은 “마무리 투수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말을 아끼면서 신중하게 시즌을 준비할 생각이다”며 “매년 스프링캠프가 똑같다. 보직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다시 한자리를 뻗을 수 있게 준비한다. 지금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욕심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혼자 부담을 느끼는 것도 김치국 마시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윤동은 보직에 대한 목표보다는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2019시즌을 준비할 생각이다.

김윤동은 “내가 했던 경기를 보는데 이게 야구 선수냐 하는 경기가 많았다. 나는 내 자신이니까 조금이라도 좋게 보려고 하는데 야구팬들은 보이는 대로 볼 것이다”며 “야구 선수도 아니라고 할 경기가 많았던 것 같다. 안 좋았던 경기는 의식 안 하

려고 하는데 2연속 끝내기는 좀 쓰라렸다”고 씩스럽게 웃었다.

또 “내 자리가 선발은 아닐 거고 불펜일 것인데 하다 보면 내 자리가 생길 것이다. 매년 확실한 자리 잡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물 흘러가는 대로 가면서 확실한 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한승혁 부상 귀국…선발 구상 원점으로

4선발 후보 이탈…김기훈·임기영·이민우 등 내부 경쟁 성과 관건

KIA 타이거즈가 원점에서 선발진 구상을 시작한다.

KIA 오키나와 캠프에 또 다른 이탈자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키나와에서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던 한승혁이 28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내전근 근육통 진단을 받은 한승혁은 귀국 후 정밀 검진을 받은 뒤 이후 스케줄을 정할 예정이다.

KIA는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새로운 외국

인 투수 제이콥 터너, 조 윌랜드로 1-3 선발진을 채워냈다. 남은 4-5선발을 놓고 육성 가리기를 하는 KIA는 이번 캠프에서 한승혁을 선발 후보로 점검했었다.

지난해 선발 경험과 다른 선발 후보들의 구위 저하가 한승혁에게 플러스 요인이 됐다.

11일 야쿠르트전에서 이번 캠프 첫 선발로 등판한 한승혁은 18일 히로시마전에 이어 지난 26일 캠프 세 번째 등판에 나섰다. 터너, 윌랜드에 이어

세 번째 투수로 선발 점검에 나섰지만 첫 타자만 상대하고 허벅지 통증으로 내려왔다.

가장 유력한 4선발 후보가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면서 KIA는 남은 5차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 테스트를 새로 진행하게 됐다.

KIA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승혁의 조기 복귀다.

한승혁은 지난해에도 내전근 부상으로 캠프를 완주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26일 귀국했던 한승혁은 시범경기를 건너뛴 뒤 4월 4일 시즌 첫 경기에 나섰다. 한승혁은 개막 전에는 마운드의 확실

한 전력은 아니었지만 불펜진의 초반 과부하로 콜업을 받은 뒤 선발 대란 속에서 선발 자리를 꿰찼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모습으로 재활과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KIA가 기대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치열한 선발 경쟁이다.

한승혁의 위기는 다른 투수들에게는 기회다. 기회의 캠프를 보내고 있는 좌완 루키 김기훈을 필두로 선발 경쟁이 있는 임기영, 이민우, 홍건희, 황인준 등이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전력 상승을 이룬다면 KIA 마운드 고민이 덜어질 수 있다.

남은 캠프에서 KIA가 마운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wool@kwangju.co.kr



‘기록’으로 보는 야구

내달 23·24일 야구기록강습회…수료자, 학생 야구 현장 기록원 활동

‘기록’으로 야구를 접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제8회 야구기록강습회(이하 강습회)가 3월 23일과 24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개최된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GBSA)와 한국야구 기록연구회(KBR)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1년 지역에서 처음 강습회가 열린 뒤 올해로 8회째는 맞는다.

강습회는 야구에 관심 있는 일반인 40명, 지역

야구 꿈나무와 학부모 20명 등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 야구협회에 소속된 학생은 무료로 강습회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자에게는 교재와 기록지가 제공되며,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수료자 중 매월 1회, 6회 이상 현장 기록에 참여할 경우 생활 및 학생 야구 현장 기록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광주시야구협회 나훈 회장의 ‘야구 메카 광주의

야구 발전사’ 강의로 막이 오르는 강습회는 이틀에 거쳐 심도있게 진행된다.

김재요 KBR 회장 등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 야구의 역사와 규칙, 규약 및 용어, 야구 기록법, 야구 규칙 등을 설명하고 직접 기록지를 채워나가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의 둘째 날인 24일 참가자들은 프로야구 개막전 중계를 보면서 기록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직접 작성한 기록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강습회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viva-sports.co.kr), 이메일(yonara77@naver.com), 전화(광주시 야구협회 062-375-8600)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강습회는 광주일보, CMB, KIA 타이거즈, 조선이공대학교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돌부처’도 산뜻한 출발

오승환 시범경기 1이닝 퍼펙트

‘돌부처’ 오승환(37·콜로라도 로키스)이 퍼펙트 투구로 올해 미국프로야구(MLB) 시범경기의 문을 산뜻하게 열었다.

오승환은 27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솔트 리버 필즈 옛 토링 스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시범경기 개막 이래 처음으로 출전한 오승환은 4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와 세 타자를 모조리 뜬 공으로 요리하고 이닝을 깔끔하게 막았다.

오승환은 첫 타자 트레이시 톰프슨을 1루수 뜬공

으로, 후속 브랜던 반스는 유격수 뜬공으로 각각 잡았다.

마지막 타자 대니얼 존슨 역시 1루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공 13개를 던져 11개를 스트라이크로 쫓은 오승환은 5회 마운드를 리코 가르시아에게 넘겼다.

오승환은 올 시즌 스코트 오버그와 팀의 셋업맨 보직을 두고 시범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프로야구에서 소방수로 활약한 오승환에게 콜로라도는 강력한 뒷문을 기대한다. 오승환은 1세이브만 보태면 한·미·일 통산 400 세이브를 수확한다.

/연합뉴스